

HANEULMUN NEWS 교회소식

하늘문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늘문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평남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같은 교단에 영락교회, 새문안교회, 소망교회 등이 있습니다. 같은 노회에 주님의 교회, 온누리교회 등이 있습니다.

1. 등록안내 - 하늘문교회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위원을 통해 등록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정규예배 시 '생활 속 거리두기(1m)' 방침에 따라 본당 지정된 예배석에 앉으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이번 주 2/17(수)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경건한 삶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쫓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 이번 주 토요일(2/20) 청소담당은 카자흐스탄 목장(권용기 집사)입니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2/21) 주일간식담당은 한나 목장(이영선 권사)에서 섬기겠습니다.
5. '하늘문의 만나' 2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한 수량만큼 가져 가셔서 꼭 목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SERVICE FOR WORSHIP 예배를 위한 섬김

담당	날짜	2월 14일	2월 21일	2월 28일	3월 7일
예배기도(2부)		박성대 집사	조정석 집사	김윤식 장로	이준화 집사
예배기도(오후)		'코로나19'로 인해 없습니다.(추후 변경 가능)			
주일간식담당 (점심식사 No)		로템목장 (정진숙권사)	한나목장 (이영선권사)	아가페목장 (김경미권사)	엘리목장 (신경미권사)
토요일청소(고정)		우즈베키스탄목장 (첫째주 토요일)	캄보디아목장 (둘째주 토요일)	카자흐스탄목장 (셋째주 토요일)	키르기스탄목장 (넷째주 토요일)

하늘문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기도제목

1. 2020년도 남-여 목장과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2. 수술 후, 자택에서 회복중인 신동기 집사님, 최순애 집사님의 쾌유를 위해서
3.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하루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4.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에이미 양 선교사님(미국)과 신완호 선교사님(몽골), 다문화 사랑의 섬터(함안), 온누리비전교회(양구), 감동의 교회(원주) 사역지와 사역을 위해서

삶의 자리에서 매일 기도 부탁 드립니다.

HANEULMUN VISION MESSAGE

하늘문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는 예수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여 교회와 세상 가운데 예수향기로 살게 하며 하늘과 세상을 감동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늘문 교회 비전

- *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와 회복의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 * 사랑으로 하나된 행복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되심으로 다름과 분열이 아닌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겨주고 세워주는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 * 다음세대를 향한 꿈을 디자인하는 교회
신앙의 대를 잇도록 다음 세대를 제대로 양육하며 믿음으로 부모들과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비전을 품고서 세계를 꿈꾸는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지역사회를 섬기며 문화를 이끌어 가는 교회
예향카페, 미니도서관, 문화아카데미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며 교회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문화를 공유하며 올바른 문화가 정착되는 것을 지향합니다.
- *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교회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여 열방을 품고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향합니다.

■ 찾아오시는 길



섬기는이 ■ 부목사 : 김묘상 ■ 전도사 : 박일선 ■ 시무장로 : 유종열, 김윤식
■ 협동장로 : 신태식 ■ 반주자 : 신혜인, 허찬송 ■ 방송실 : 권다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문의전화 : 031-595-1534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2536
(우)12192

http://www.haneulmun.com

2021년
2월 14일
07-07호



HANEULMUN'S Happiness

하늘문교회 행복초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안에서 존귀하게 자신의 삶을 발견하며 삶의 행복을 찾도록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하늘문교회
HANEULMU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허영진
Pastor Young Jin Hur

1부(오전 9:30), 2부(오전 11:00) 인도 : 허영진 목사

예배로 나아감

*예배로 부름	인도자
*성시교독	다같이
*경배찬송	다같이
*참회기도	다같이
*신앙고백	다같이

찬양과 기도

찬송	197장(통 178장)	다같이
대표기도	1부인도자, 2부백성대집사	

봉헌과 말씀


성경봉독	시 107:23-32	인도자
자녀를 위한기도	허영진 목사	
봉헌기도	인도자	
말씀선포	‘인생의 광풍 속에서’	허영진 목사

친교와 축복

교회소식	인도자
*결단송	다같이
*축도	허영진 목사

(*는 일어섭니다)

이달의 말씀



그는 넘어나 아주 얹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4절

◆헌금은 들어오시기 전, 준비된 헌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쉽니다.’



WEEKLY WORSHIP 주중예배

수요예배	저녁 7:30 로마서 강해 롬 8:31-39 '함께 하시는 하나님'	허영진 목사
금요기도회	저녁 9:00 기도를 논하다 '올바른 과녁을 향한 기도'(134)	허영진 목사
새벽기도회 (월~금)	새벽 5:30 <하늘문의 만나> 말씀묵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영진 목사

◆우리는 온 맘 다해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봄날은 온다

겨울이 코끝에 걸리면 으레 가장 먼저 봄옷을 찾게 마련이다. 두터운 외투를 벗고 가지런히 정리하다 보면, 지난 혹한의 고통을 언제 이겨내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다음 계절을 맞곤 한다. 계절이 바뀌는 과정에서 겪는 기대감도 잠시, 계절의 한 가운데로 들어가면 기대감은 고사하고 열린 지나갔으면 하는 고통에 연신 힘들다. 인생사도 마찬가지다. 누군들 고통 없이 살 수 있을까.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난의 시련에 난파당하거나 세찬 급류에 떠내려간 사람들이 있다. 시련의 고통은 거칠고 혹독하다. 삶에서 고통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단지 생각에 지나지 않는다. 떼어 놓을 수 없다면 고통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고통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익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인생에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다. 계절이 그러하듯 인생에도 봄날이 온다. 시련에 따른 고통이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기쁨이 내 곁을 맴도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가. 불현듯 고통이 찾아왔듯이 예기치 않은 순간에 기쁨도 다가오게 마련이다. 고통을 통과하려면 무지 아프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얻는 축복이 있다. 현재보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사람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 겸손함을 배우게 된다. 좀 더 확대해보면, 고통의 위협이 커질수록 삶은 더욱 명확해진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하며 견뎌야 한다. 그러다보면 언젠가 그 두텁던 고통의 굴레도 하나 둘씩 떨어나갈 테니 말이다.

고통의 무게를 견디려면 영적인 힘을 길러야 한다. 고통이 삶을 짓눌러도 영혼은 잠시 휘일지언정 결코 부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고통을 곧장 면하게 해주시기보다 고통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 사순절을 앞두고 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며 지신 주님의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신다. 고통을 통해 또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하신다. 이해할 수도 알 수 없는 고통이 있듯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이 고통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자.

Written by 허영진